다발성 골수종에서의 신질환

계명의대 내과

석준. 주일. 박성배. 김현철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약 50%에서 신장이 침범되며, 그 증상은 단백뇨, 신증후군, 급성 및 만성신부전, 유전분증, 신세뇨관 장애, 요로감염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됨이 보고되어 있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신장 침범에 관한 보고는 매우 드물다. 연자들은 계명의대 동산의료원에서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된 46예 가운데 신침범이 있었던 14예(30%)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령 및 성별 분포는 남자 8명, 여자 6명 이였고, 환자의 평균 연령은 54.6±11.5(36-72)세 였으며 50세 이상이 64%를 차지하였다. 진단당시의 신병변의 임상양상은 급성 신부전 7예(50%), 만성 신부전 7예(50%) 였다. 진단시 신침범이 있었던 군은 BUN 74.4±29.5 mg/dl, 혈청 creatinine 8.3±4.1 mg/dl, 칼슘 11.6±2.6 mg/dl, 24시간 뇨 단백량 7.2±3.0g으로 신침범이 없었던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혈색소, 혈청뇨산치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침범이 있었던 14예중 7예에서 신생검을 실시하였고, 신생검을 실시한 7예는 각각 골수종 원주에의한 신증 4예, 과칼슘혈증성 신증 2예, light chain 신증 1예로 확진되었다.

급성 신부전의 7예는 보존적요법과 신대체요법으로 신기능이 회복되었고, 만성 신부전의 7예는 지속적인 신대체요법을 실시하였다. 신침범을 보였던 14예의 평균 생존 기간은 8개월로, 신침범이 없었던 32예의 평균 생존 기간인 29개월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다.

이상의 성적을 종합하면 다발성 골수종에서 신침범은 30%에서 발현되었고, 신침범이 없었던 군에 비해 평균 생존기간이 현저히 감소되었던것으로 보아 신침범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생각된다.